

사학과 정기행사

1999년 가을
행사

조선 시기 읍성과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1999년 11월 3일 ~ 11월 5일

연·세·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

01 76 9
016 721 5323

사학과 전공심사

1999년 가을
특강 26661

조선시기 읍성과
백제문화권 중심으로

1999년 11월 3일 ~ 11월 5일

연·세·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

차 례

1. 답사를 떠나면서	1
1) 답사를 떠나면서	
2) 답사 일정과 경로	
3) 답사지역 지도	
2. 답사지역 및 유물·유적 소개	6
1) 제 1일	
2) 제 2일	
3) 제 3일	
3. 주제 논문 (1)	30
1) 백제의 문화수용과 전파	
2) 충남 서해연안의 읍성에 대한 고찰	
4. 주제 논문 (2)	48
1) 구석기 문화의 연구 - 공주 석장리 유적을 중심으로	
2) 성주사지에 관하여 - 신라말 선종구산문과 관련하여	
3) 대원군 정권의 개혁정치	
4) 홍성지방의 의병운동과 국가건설운동	
5. 참고자료	79
5. 답사를 준비한 사람들	84

답사를 떠나며

언젠가 백양로를 걷다 문득 유심히 바라본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고단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학문적인 희열보다는 의무감이 앞서는 수업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워싸고 있는 유난히 청명한 가을 하늘과 정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성곽과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준비하게 된 우리는 일상의 무게에 지친 여러분들이 이번 답사를 통해 시끄러운 축제와 번잡한 유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위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사는 내력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만나게 될 성곽에 새겨진 이름들과 흔적만 남아있는 사찰의 유물 그리고 고대인들의 흔적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애환과 고뇌를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포함한 거대한 우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 분의 지도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동행하는 이번 답사는 역사학도임을 자임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학습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활속에서 각자가 사연이 있는 물건을 간직하고 상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역사의 흔적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수업과 책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값진 배움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이 아닌 발견해낸 깨달음이 무엇보다 의미 있고 오래 지속되리라 확신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식 학부답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무리없이 움직여줘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 유적지에서 학교와 학과의 위신을 훼손할 만한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번 답사가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사 일정 및 경로

11월 3일 (水) 제 1 일

서울 → 추사고택 → 점심(도시락) → 남연군묘 → 윤봉길의사 사적지 → 해미읍성 →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지 → 덕산(숙박)

11월 4일 (木) 제 2 일

PM 6:40 홍성행

덕산 → 홍주성 → 오천성 → 보령읍성 → 성주사터 → 점심(무량사삼호식당) → 무량사 → 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능산리고분군 → 부여(숙박)

11월 5일 (金) 제 3 일

부여 → 동학위령탑 → 공산성 → 공주박물관 → 점심(공주시내) → 석장리유적지 → 마곡사 → 서울

忠 · 淸 · 南 · 道

제 1 일

우리나라 중남부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평택·안성군과,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진천·보은군과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의 완주·익산군 등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황해를 끼고 있다. 면적은 8,304km²로 남한 면적의 약 8.3%, 인구는 200만 2684명(1989년 현재)로 전국 인구의 7.2%를 차지한다.

기후는 온화한 편으로 1년에 평균 1,000mm~1,500mm 정도의 비가 내리며 토질은 기름진 편이어서 농사 짓기에 알맞다. 주요 생산지대는 금강유역의 저지대로 인구가 조밀한 편이다. 해안선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직선 거리는 150km에 불과하나 굴곡이 심하여 실제 거리는 1,700km에 달한다.

관광자원으로는 국립공원으로 계룡산이, 도립공원으로 칠갑산과 덕숭산 등의 명산이 있으며 사찰로는 수덕사, 마곡사, 갑사, 개심사 등이 있다. 곳곳에 백제 시대의 유물·유적들이 많이 있다.

충청남도는 차령산맥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한북판을 가로질러 그것을 기준으로 서북부와 동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 차령산맥 이남 지역, 보령·청양·공주·연기·대덕·대전·금산·논산·부여·서천군의 경우 전라북도 말의 요소가 짙게 물들어 있다면 그 이북, 그 중에서도 경기도와 접한 아산·천안·온양은 표준어의 침식을 꽤 많이 받았다. 가야산 주변 지역, 서산·당진·예산·홍성 등이 '내포 방언'이라 하여 흔히 우리가 충청도 사투리라 여기는 길게 늘어지는 말꼬리, '위다', '위째서' 등의 방언을 구사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동성마을이 특히 많은데 30세대 이상의 동성마을 수가 442개에 달한다. 이중 규모가 큰 것으로는 서천군 한산면의 韓山 李氏, 연기군 양화리의 扶安 林氏, 보령군 웅천면의 慶州 金氏 등이 있다.

물산이 많기로는 영남이나 호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천이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 가까운 남쪽이어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서울에 대대로 사는 집 가운데 이 도에다 논밭과 집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굴라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 『택리지』 중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구석기 이래로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삼한 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에는 마한 54개국 중 약 10여국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후 백제에 병합되어 웅진시대, 사비시대를 거치면서 그 중심지가 되어 왔다. 백제 멸망 후 현 예산군에 위치한 任存城에서 黑齒常之 등이 부흥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백제 멸망 후에는 한때 당나라 도독부의 통치를 받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熊州에 속하였다. 신라가 쇠퇴하자 후백제·후고구려가 運州(현재의 洪城)·웅주(현재의 公州)에서 활약하였으나 931년(태조 14) 고려에 통합되었다.

'충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은 것은 1356년(공민왕 5)에 이르러서였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계룡산 지역이 새 도읍지로 주목되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상 부적합하다는 말에 따라 新都 건설은 중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룡산 일대는 신흥 종교들의 본산으로 주목받아 왔다.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바다에 접한 내포 땅에서 급격히 교세가 확장되었다. 1791년(정조 15) 典禮문제를 일으킨 윤지충도 충남 진산 사람이었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도 당진 사람이다. 1794년(정조 18)에는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가 직접 이 지역에서 포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천주 교세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백여 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이 마감된 곳, 청일전쟁이 시작된 곳 모두가 충청남도로, 근현대의 격동기를 함께 한 지역이었다.

禮 · 山 · 郡

이 군의 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서쪽에는 가야산맥이 남서쪽으로 달리고 있어 동부와 서부는 산지를 이루며, 중앙부에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에 道高山(482m)·鳳首山(534m) 등이 서부에 修德山(495m), 伽倻山(678m) 등이 솟아 있으며 이들 사이를 삼교천과 무한천 등이 흐르면서 그 유역에 넓고 기름진 禮唐 평야를 전개시킨다. 불교문화재로 덕산면 사천리의 修德寺가 유명하며 백제 유일의 四方佛인 봉산면 화전리의 예산화전리면석불 등이 있다. 오페르트에 의한 도굴 사건으로 유명한 남연군묘가 위치한 곳도 이곳 덕산면이다.

추사 고택 (秋史 故宅)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주택.

조선후기 서예가이며 금석학자인 김정희의 고택으로, 증조부인 駙馬 金漢薰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집을 지을 때 京工匠들이 와서 지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에 더하여 곳간채가 있었다. 추사의 직계손이 끊겨 다른 사람에 팔린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헐렸다. 지금 건물들은 1977년 수리·복원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쪽의 안채와 그 지반보다 약간 낮은 동쪽의 사랑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물 전체가 서에서 동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안채와 대청이 동향하고 사랑채와 안채의 각 방이 남향하여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방의 전면에는 툇마루가 있어 이것을 통로로 서로 내왕할 수 있게 하였다. 지붕구조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주로 하고 지형의 고저차가 생긴 곳에서는 맞배 지붕으로 처리하여 지형에 따라 층이 지게 적절히 처리하였다.

안채 가운데에 있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이 완전히 밀폐된 ㉠자형의 평면배치를 이루었다. 서쪽 중앙부분에는 3×2칸의 대청이 동향하고 이에 對向하여 동쪽에 2칸 규모의 중문과 1칸의 행랑방이 있다. 한편 안방과 그에 부속된 공간들은 북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방 동쪽으로 계속해서 2칸의 부엌이 이어져 있으나 이 부엌과 안마당의 사이에는 벽이 없어 개방된 상태다.

사랑채 대청 건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넌방은 그 동쪽에 2칸 규모의 부엌이 달려 있으며 다시 그 동쪽으로 두 개의 방을 이어내고 중문과 연결하고 있다. 남향하여 역㉠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남으로부터 1칸의 온돌방과 2칸의 마루방이 있으며 그로부터 동쪽으로 꺾여서 1칸 규모의 대청이 있고 다시 2칸으로 이어진 큰 사랑방이 있다.

고택 왼쪽을 따라 계곡을 하나 지난 자리에 추사 김정희의 묘가 있고 오른쪽으로 둔덕을 하나 넘으면 추사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조의 딸 화순옹주묘가 있다. 화순옹주는 남편인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여 따라 죽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 1786(정조 10)~1856(철종 7)

본관은 慶州이며 字는 元春. 호는 秋史, 阮堂, 禮堂, 詩庵, 老果, 農丈人, 天竺古先生 등 백여가지에 이른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조선조의 훈척가문의 하나인 慶州 金門에서 병조판서 魯敬과 杞溪俞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魯永 앞으로 출계하였다. 추사의 집안은 7대조인 金弘郁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姜嬪獄事에 대해 바른 말로 상소하다가 杖殺된 일이 있던 후 名門으로 부상하였다. 추사의 고조 興慶은 영의정을 지냈고 증조 漢薰은 영조의 장녀인 和順翁主의 부마가 되어 月城尉에 피봉되었다.

추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암기력이 비상하였으며 일찍부터 서울에 올라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어서 20대에 이르러 이미 학문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추사가 일찍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楚亭 朴齊家の 영향이 매우 컸다.



당시 북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박제가는 추사의 생부 김노영과 함께 燕行을 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추사와 박제가의 자연스럽게 師弟 관계를 맺게 되었다. 추사는 박제가로부터 북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청조 고증학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갔다.

1809년 24세로 생원시에 일등으로 入第한 추사는 그 해 12월 생부인 김노경이 冬至兼謝恩副使로 연행함에 따라서 子弟軍官으로 수행하게 되어 청조의 학문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행은 추사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당대 대학자인 阮元, 翁方綱 등을 만나 師弟義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추사의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사는 31세 때 『實事求是說』을 저술하여 자신의 經學觀을 밝혔으며 北漢山 巡狩碑를 발견, 판독하였다. 34세인 1819년(순조 1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규장각 대교, 예조참의 등을 거쳐 병조참판에까지 올랐다.

한편 1830년 생부 김노경이 尹商度獄에 연루되어 古今島에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1840년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정권 싸움에서 이것이 재론되어 김노경은 관직을 추탈당하고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9년을 보내다가 1848년에야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1851년 친구인 영의정 權敦仁이 안동김문이 행한 철종의 왕위 계승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연루되어 北靑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 돌아왔다. 당시는 안동 김문이 득세하던 시기였으므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생부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며 지냈다. 추사는 10여 년 간의 유배생활로 불우한 말년을 보냈지만 유배기간 중에 더욱 학문에 정진해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서화에 있어서도 『歲寒圖』 등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추사는 果川의 瓜地草堂과 독섬의 奉思寺를 왕래하면서 저술과 작품활동, 불교 신앙 생활에 열중하다가 철종 7년인 1856년 71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추사의 제자로는 趙熙龍, 田琦 등이 유명하는데 특히 추사가 높이 평가했던 인물은 小癡 許鍊이었다. 허련의 화풍은 그의 가문과 후계자를 통하여 현대의 湖南畫壇에 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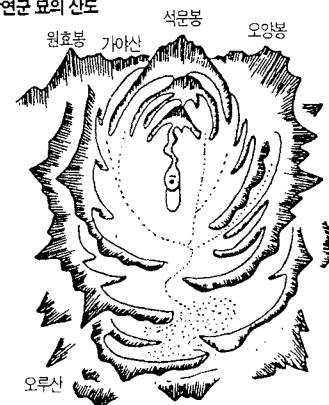
◆ 『秋史影幀』 1857년 李漢喆작

남연군묘 (南延君墓)

남연군 묘는 조선조 말 흥선대원군의 야망이 묻힌 곳이다. 1822년 남연군이 돌아가고 난 뒤 명당을 찾던 도중, 두 곳이 눈에 들어왔다. 가야산 동쪽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오는 자리와, 광천 오서산에 만대에 영화를 누리는 자리이다. 흥선대원군은 두 말 할 것 없이 가야산을 택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가야사가 있었고, 명당 그 자리에는 금탑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폐하고 남연군의 묘를 옮겼다. 남연군 묘의 지세는 한마디로 풍수지리가 일컫는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뒤로 가야산 서편 봉우리에 두 바위가 문기둥처럼 서 있다는 석문봉이 주산이 되고, 왼쪽으로는 옥양봉, 남경봉이 덕산을 거치면서 30리에 거쳐 용머리에서 멎는 청룡새를 이루고, 오른쪽으로 백호의 세는 가사봉, 가엽봉에 원효봉으로 이어지는 맥이 금청산 월봉에 뭉쳐 감싼 자리이다. 동남향을 바라보던 평야를 지나 멀리 60리 떨어진 곳에 있는 봉수산이 안산이 된다. 남연군 묘 앞에 있는 장명등 창으로 남쪽을 바라보면 그 동그란 창새로 보이는 곳이다. 또 청룡맥의 옥녀폭포의 물과, 백호의 가사봉 계곡의 물이 와룡담에 모였다가 절 앞에서 서로 굽이치며 흐르니 임수의 지세도 얻었다. 가야사는 그 두 물줄기가 합치는 곳에 있었다. 금탑이 있던 자리라는 남연군 묘는 그 뒤 우뚝 솟은 언덕배기이니, 흔히 절 마당이나 법당 앞에 탑을 놓는 방식과는 달리 절 뒤쪽의 언덕에 탑이 있었던 것만도 예사 자리는 아니다.



남연군 묘의 산도



윤봉길 의사 사적지

윤봉길 의사 사적지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 있다. 사적지에는 생가와 네 살 때부터 중국 망명 전까지 살던 집이 따로 있다. 생가는 두 물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배모양의 도중도에 있고 광현당이라는 당호가 붙여 있다. 옛 집은 그가 네 살 때 옮겨온 곳이다. 이 집에는 '한국을 건져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윤봉길이 지어 붙인 '저한당'이라는 당호가 있다. 둘 다 조출한 초가집이다. 윤의사 사적지는 1972년에 사적 제 229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지를 정비하면서 여러 곳을 갈고 다듬고 하여 건물 자체의 옛 맛은 남아 있지 않다. 기념관 안에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의거 할 때 지니고 있던 소지품과 그가 생전에 쓰던 유품과 서책,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회중시계는 상해에서 의거하기 직전에 김구 선생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졌던 물건이라고 한다. 그가 사형을 당한 일본 가와사나 교외의 미코시 공병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운봉길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형틀대도 있다. 그가 20세에 야학을 꾸릴 때 교재로 펴낸 『농민독본』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도 있는 운봉길의 유품은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일괄하여 13종 68점이 함께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적지 길 건너에는 사당 충의사가 있어 해방 후에 돌아온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

해미면 (海美面)

충청남도 서산군 남동부에 있는 면. 면소재지는 읍내리이다. 면의 동부는 대체로 100~500m의 산지를 이루며, 동쪽 경계에는 석문봉(653m)·가야봉(678m)·뒷산(448m) 등이 솟아 있다. 동남부의 연암산(441m) 일대에서 발원한 해미천이 면내에서 북서류하며, 남서쪽의 해미천 하구에는 천수만방조제를 쌓아 형성된 담수호가 조성되어 있다. 면의 서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쌀·마늘·생각 등이 많이 생산되며,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배추재배가 활발하다. 유물·유적으로 해미읍성(사적 제116호)이 있으며, 읍성 밖의 해미천 연안은 천주교도들의 생매장 순교지였다. 서산 - 예산을 잇는 국도가 면내를 지나며,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된 예정이다.

해미읍성 (海美邑城)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에 소재한 조선시대의 읍성. 사적 제116호. 해미는 1414년(태종14)에 충청도 덕산으로부터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이 옮겨온 곳으로, 충청도병마사영이 청주로 이전한 1651년(효종 2)까지 군사적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해미읍성은 1491년(성종 22)에 축조되어 서해안방어를 맡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3172척, 높이가 15척, 성안에는 3개의 유물과 군창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6630척으로 보로 계산하면 2219보가 되고 높이는 13척, 치성은 382척으로 되어 있으며 사방에 문이 있다고 했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의 표본으로 삼아 서적으로 지정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한편, 성 안팎에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민가를 철거·이전시키고 종합적인 보존계획을 세웠다. 1974년에 동문·서문이 복원되었으며 1981년에는 성안의 일부를 발굴한 결과 관아 터가 확인되었다.

서산마애삼존불 (瑞山磨崖三尊佛)

· 국보 제84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백제시대 마애삼존불상. 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계곡을 따라 계속 가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古路였다. 바로 이 길에 서산마애삼존불,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태안마애삼존불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서산마애삼존불은 本尊과 左·右脇侍菩薩로 구성되어 있다. 묵중하고 중후한 체구의 본존은 머리에 寶珠형 頭光이 있으며, 素髮의 머리에 육계는 작다.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는 흔히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법의는 두꺼워서 거의 몸이 나타나지 않는다. 옷주름은 앞에서 U자형이 되고 수인은 施無畏·與願印을 맺고 있다. 대좌부터 광배까지의 길이는 2.8m에 달한다.

우협시보살은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눈과 입을 통하여 만면에 미소를 풍기고 있다. 상체는 裸形이고 하체의 법의는 발등까



지 내려와 있다. 좌협시보살은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半跏像을 배치하였다. 두 팔에 크게 손상을 입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머리에는 관을 썼고 역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두 보살 모두 전체적으로 4등신의 비례를 가졌으며 대좌부터 광배까지의 길이는 약 1.7m이다. 본존의 눈을 크게 뜬 웃음, 우협시보살의 소녀같은 미소 등은 백제의 특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삼존상은 『法華經』의 授記三尊佛, 즉 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의 삼존불로 보거나 당시 성행했던 신앙형태에 따라 석가여래와 관음·미륵보살로 추정하기도 한다.

김좌진 장군 생가터

홍성에서 해미가는 길에 있는 길산면 행산리는 '청산리대첩'으로 유명한 백야 김좌진(白冶 金佐鎭, 1889~1929) 장군의 고향이다. 개화 사상이 투철한 장군은 15세 때에 가노를 해방할 정도였다. 1905년 호명 학교를 세운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 회복의 신념을 가지고 상경하여 지사들과 교류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대한협회지부를 결성하였다. 다시 상경하여 기호흥학회, 청년학우회, 한성순보의 간부로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1913년 대한 광복단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1917년에 만주로 건너가 대종교에 입교하였는데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항일운동에 바쳤다. 삼일운동 후에는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이 되어 1600여명의 독립군을 훈련시켰는데, 이를 기반으로 1920년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나중소, 박영화, 이범석 등과 함께 청산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제1921사단의 5만군대를 2500명의 독립군이 대항하여 3300여명의 일군을 섬멸한 이 싸움은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손꼽힌다. 그 후 흑룡강쪽으로 부대를 이동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부총재에 취임하였고, 1925년에 만주로 돌아와 신민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성동서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1929년에는 한족연합회를 결성하여 황무지 개간, 문화계몽 산업, 독립정신 고취와 단결을 호소하다가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을 추서받았다.

만해 한용운 생가터

무량리의 고산사를 지나 청룡산 옆구리로 난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결성면 성곡리에 이른다. 양옆으로 과수원이 웅기종기 있는 한갓진 길에 자그마하게 한용운 선생 생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다. 포장된 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산자락에 기대 조붓하게 앉아 있는 초가 삼간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인 한용운 선생이 1879년(고종 16년)에 태어난 곳이다. 선생의 호는 만해이며 속명은 유천이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16세에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27세(1905년)에 인제의 백담사에서 득도하니 은사는 연곡화상이며, 계명은 봉완, 법호는 용운이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을 첨가하였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하여 저항 문학과 일제 침략 당시의 민족혼을 일깨우려 노력하였다. 1944년 5월 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6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고, 유해는 망우리에 안장하였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으며 한용운 선생의 애민·애국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이곳에 표석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초가집은 옛터에다가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기념식수와 안내판, 석비들이 다소 어색하지만 그래도 바자울에 사립문이 있어서 펍 정답다.

보원사지 (普願寺址)

최치원의 『당대천복사 고사주 변경대덕 법장화상전』에 기록된 통일신라시기 화엄 10찰중의 하나. 백제시대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본사라고도 하고, 한때 고란사라는 이름이었다고도 하나 절의 내력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조선중기의 『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전에 폐사가 된 듯 보인다.

입구의 당간지주가 늪름하게 수문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안쪽 거의 일직선 상으로 키 큰 고려시대의 5층석탑이 있으며, 안쪽으로 석조와 법인 국사부도, 그 부도비와 건물자리의 기둥초석

제 2 일

*홍주는 호서(湖西)의 거읍(巨邑)이다. 그 때이 기름지고 넓으며,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서, 난치의 고을로 일컬어 왔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성군

들이 넓은 터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이들을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봉원사터는 현재 사적 361호로, 발굴조사시 백제 금동여래입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 입상이 발견되었다.

충청남도 서해에 있는 군. 예로부터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교통·통신·행정·교육 및 기타 서비스업의 중심지로 발달해 왔다. 지금의 홍성군은 조선시대의 홍주목과 결성현이 합해져 이루어진 군이다. 홍주목의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단지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는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의 최후의 항거지였던 주류성으로, 그 후 신라가 임성군을 설치한 것으로 기록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차령산맥 이북의 충청도 서북부의 중심지역이며, 충청도 4대 고을 중 하나였던 이 지역은 이후 대전의 성장 등으로 그 세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군의 동쪽·남쪽·북쪽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서쪽은 천수만에 접해 있다. 홍주목의 소재지로 예로부터 공주와 함께 충청남도지역의 행정·경제·교육·군사 중심지로 발달해, 유물·유적이 많다. 노은서원·성삼문 선생 유허비·홍주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14점이 있다.

홍 주 성

홍성에 진입하여 길 한가운데에 들어서면 홍주성의 동문인 조양문과 맞부딪치게 된다. 조양문을 바라보아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쪽 들어가면 홍성군청문 옆에 홍주목의 정문이었던 홍주아문을 볼 수 있다. 사적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는 홍주성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은 홍주아문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간 곳이다. 돌을 잘 다듬어 암전하게 쌓아올린 4m 높이의 석축이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은 길이는 810m 정도인데, 이것은 원래

1772m 길이의 성곽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허무려하는 것을 읍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하여 지킨 것이다. 홍주성은 백제가 멸망했을 때에 부흥군의 중요 거점이었던 주류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처음 성을 쌓은 것이 언제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 초기에 새로 수축한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조선 초기의 축성 규칙에 따른 모습을 충실히 보여 주어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축성 당시에는 적대(敵臺)가 24 곳, 문이 4곳, 성내에 우물이 2곳 있었으며 둘레에는 해자를 파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번 수리를 했으나 1870년에 목사 한응필이 동문인 조양문(朝陽門)과 서문인 경의문(景義門), 북문인 망화문(望華門)과 관영을 지었다. 다른 성들과는 달리 문루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조양문 (朝陽門)

홍주성 문루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며 유일하게 복원된 것으로 사적 제201호이다. 주문이 동문인 점은 대개 남문이 주문인 다른 성들에 견주어 특이하다. 그러나 홍주성이 서해로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왜구를 물리치는 거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조양문의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팔작지붕에 다포계 건물이다. 현재의 모습은 1975년에 완전히 해체하여 복원한 것인데 삭축 가운데 부분에는 세월의 때를 입은 옛 돌이, 바깥쪽에는 흰 빛의 새 돌이 있어 세월의 대조를 보여 준다.

오천면

충청남도 보령군 중북부에 있는 면. 면소재지는 소성리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200m이하의 구룡성 산지를 이룬다. 북쪽은 천수만, 서쪽은 서해에 면해 있으며, 원산도·삼시도·효자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지는 해안과 하천 연안에 분포한다. 농업과 어업은 약 6 : 4의 비율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은 쌀·콩·잎담배 등이며, 멸치·꽃게·우럭·새우·전복 등의 어획과 김 양식이

활발하다. 보령오천성·오천향교대성전 등의 우적과 외연도에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이 있으며, 원산도에 원산도 해수욕장이 있다. 대천 - 홍성을 잇는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가 면 내를 지난다.

오천성 (鰲川城)

오천성(鰲川城)은 조선 중종 5년(1510년)에 서해안 방어 기지의 하나로 쌓은 성이다. 구룡 주변에 성을 쌓아 성밖과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다. 오천항은 고려 때부터 배가 드나들던 항구로 일본과 중국을 향한 중요한 교역항이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수영(水營)이 있었으니 군사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곳이다. 넓이가 1만 3747m² 나 되는데 그 안에 관덕정 등 정자와 웅성 5개, 문 4개, 못 1개소와 40여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장교청 등 두 채와, 서문이었던 망화문터의 석문 홍예만 남아있고 성축이 남은 길이는 모두 1km 남짓하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9호이다. 충청남도 읍성들의 돌 크기는 보령·면천·해미 읍성에서도 그리하지 만 여기에도 큼지막한 돌들을 잘 다듬어서 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남아서 잘 보이는 부분은 많지 않으나 그 쌓은 모양만큼은 정연하다. 다만 너무나 폐허처럼 버려져서 찾는 이가 드물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못하니 그래서 더 쉬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

보령읍성 (保寧邑城)

서해안은 백제 시대 이래로 왜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아 늘 불안한 곳이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방비를 위한 수영도 세워지고 읍성도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은 곳도 많은데 보령읍성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보령에 내주고 말았지만 옛날에는 이곳 주포면이 보령 행정의 중심지였다. 보령리의 이 읍성은 고려 시대에 처음 쌓고(아마 토성이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석성으로

고쳐 쌓은 것으로 여겨지니 그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읍성은 군사요충지로서, 행정중심지로서 그 구실을 다했다. 높이가 3m의 성둘레는 633m가 남아 있으며, 성안에는 못 하나와 우물 둘이 있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46호이다. 11세기인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방지하려고 처음 쌓았으며 고려 말엽에는 외곽에 고남산성을 쌓아 방비를 더 튼튼히 했다. 결국 왜구의 손에 크게 파손되어 10여년 동안 방치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석성으로 다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에 완전히 파괴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맨 아래쪽 돌은 1m 가 넘는 큰 것도 있어 매우 튼실해 보이나 그야말로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는 듯하다.

성주사지 (聖住寺址)

충청남도 보령군 마산면 성주리 성주상에 있었던 사찰.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과의 중심사찰이었다.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 법왕 때에 창건된 오합사가 이 사찰이라는 사실이 1960년부터 수습된 기왓장조각에서 확인되었다. 백제의 멸망 직전에 이 절에 큰 적마가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아다니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해주었다고 한다. 신라 문성왕 때 당나라에서 귀국한 국사 무염이 김양의 전교에 따라 이 절을 중창하고 주지가 되어 선도를 선양하게 되자 왕이 성주사라는 이름을 내리게 되었다. 그 뒤 이 절은 성주산과의 총본산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중건되지 못하여 현재 폐사터만이 사적 제 307호로 남아 있다. 그러나 번창하였을 때에는 절에서 쌀 씻은 드물이 성수천을 따라 10리나 흘러내렸다고 한다. 문화재로는 국보 제8호인 성주당해화상백월보광탑비를 비롯하여 4기의 석탑과 석등, 석불입상, 당간지주, 석계단 등이 있어서 옛날의 규모를 말해준다. 이 가운데 백화상탑비는 890년(진성여왕 4)에 세워진 신라 최대의 것으로 최치원의 글들 짓고 최인연이 썼는데 고어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4기의 석탑은 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물 제 19호인 경주사지오층석탑과 보물 제 20호인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조각수법이 우수한 보물 제 47호의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26



호인 성주사지동삼층석탑 등이다. 또한 높이 1.85m의 석등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4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단이 남아 있는 석계단은 목에 방울이 달린 석수가 앉아 있으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140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량사 (無量寺)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만수산에 있는 사찰. 대한 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신라 말에 범일이 창건하여 여러 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대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신라 말의 고승 무염이 일시 머물렀고, 고려 시대에 크게 중창하였으며, 김시습이 이 절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입적하였고, 저선 중기의 고승 진묵이 아미타불을 점안하고 나무 열매로 술을 빚어서 마시면서 도도한 시심을 펼쳤던 사찰이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보물 제 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는 동양최대의 불좌상이라는 아미타여래삼전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산신각에는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중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 233호로 지정된 석등과 보물 제 356호로 지정된 오층석탑, 절 문앞에 있는 거대한 당간지주, 김시습의 부도 등이 있다. 또한 김시습이 1493년(성종 24)이곳에서 죽자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 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 그 위 읍의 선비들이 김시습의 풍모와 절개를 사모하여 학궁 곁에 사당을 짓고 청일사라 이름하고 그 초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상당수의 경관이 간행되었다. 1498년(연산군 4)에는 『법계성풍구록승회재의궤』를, 1522년(중종 17)에는 『몽산화상육도보설』을, 1470년에서 1494년 사이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을 간행하였다.

부여군 (夫餘郡)

충청남도 서남군 서남부에 위치한 군. 동쪽은 논산군, 서쪽은 서천군·보령군,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익산군 북쪽은 공주군·청양군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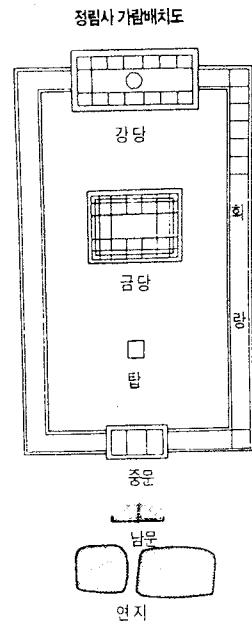
백제의 옛 도읍지였기 때문에 유물·유적이 많다. 1975년에 발굴, 조사된 초촌면 송국리 선사취락지는 농경생활을 영위하던 청동기 문화인의 유적으로서의 최대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무늬토기·간석기·돌널무덤 등이 발견되었으며, 탄화미도 발견되어 벼농사의 기원을 무문토기문화와 확실하게 연결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초촌면 산적리와 규암·은산·충화·석성 등에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청동기기대의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초산국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부여군은 백제 시대의 소부리·대산홀·가람홀·진악산에 해당된다. 특히 부여읍일대는 소부리 혹은 사비라고 하였으며, '부리'하는 말은 '밝다'·'밝다' 등에서 나왔다고 한다. 538년(성왕 16)에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 뒤 6대 120여 년 간 백제의 수도로서 번성기에는 13만여호의 가구가 살았으며, 이 시기에는 문화의 꽃을 피웠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문무왕이 총관을 두었다가 686년(신문왕 6)에 사비주를 군으로 삼았으며, 경덕왕 때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면서 부여를 그 속군으로 하였다. 석산현·열성현 등이 속현으로 부여군 소속이 되었다. 신라 말에는 후백제의 영역이 되었다가, 고려가 성립된 뒤 태조가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곧 이곳도 고려의 영역이 되었다. 그 뒤 성종 때 하남도에 예속되었고 예종 이후에는 청주목의 속군인 공주에 속하였으며 부여군이라 하였다. 현종 때는 일시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1028년(현종 19)에는 정림사가 중건되었다고 한다. 고려 말엽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였는데 1376년(우왕 2)에 최영이 홍산면 일대에서 왜구를 크게 토벌하였다. 건국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오다가 태종 때에 팔도제를 정비하면서 공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부여군은 부여현·홍산현·임천군·석정현으로 나뉘어 있었고, 4개군현에 각각 향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6개의 사액서원을 비롯하여 많은 서원·사우가 세워졌다. 1895년(고종 32)에는 팔도제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하여 공주부 아래의 부여군으로 승격시켰다. 1896년 13도제로 변경하였을 때 충청남도의 군이 되었다. 1914년 부·군통합령의 실시로 홍산·임천 전 지역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16개면을 관할하였다. 1960년 부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에는 석성면 현북리가 부여읍에 편입되었고, 장암면 사산리는 세도에 편입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부소산에 있는 국립 박물관. 1929년 부여고적보존회가 백제유물을 전시하여 백제관을 개관한 뒤 39년 4월 총독부 박물관 부여 분관이 되었고, 49년 12월 문교부 소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하였다. 90년 1월 문화부가 분리, 신설되면서 문화부 소속이 되었다. 제 1실은 선사시대 백제 시대실, 제 2실은 불상·공예실, 제 3실은 석불·석등 등의 석주물실이고, 정원에 석조·석비·석재·주춧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소장 유물은 6,814점(1989년 3월말 현재)이다.

정림사지 (定林寺址)

부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이 정림사지는 백제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이다. 현재 경내에는 5층 석탑 1기와 석불좌상 일구가 남북으로 마주보며 남아있다. 이들 유물들 중앙에 두고 장방형으로 구획된 약 3000여평의 대지는 대부분 발굴조사를 마치고 정리 되었으며, 건물지 유구가 잔디 식재로 그 자리를 알 수 있도록 복원되었다. 이 사지는 그 유래나 사명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폐사지의 하나인데, 1942년 일본인 학자 등택일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소규모의 것으로, 출토된 강당지와편중에 ‘太平八年? ? 定林寺大? 當草’라는 명문이 있어 그 이후로는 정림사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 1979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충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때는 사지 전역에 걸쳐서 약 3000평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일정시의 1차 조사에서 밝혀지 못하였던 여러 중요 자료를 확인하였다. 현재 강당지의 중앙부에는 석불좌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강당은 고려시대에 재건된 것인데 고려시대 불상의 전제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만, 2차에 걸쳐 형성된 기단의 성격으로 보아도 정림사는 고려 때 재건된 사찰임이 분명하다. 정림사지는 남북오선상에 그 기분축을 두고 2개의 연못, 나문지, 중문지, 석탑, 금당지, 강당지 그리고 회랑이 구비된 일탑일금당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의 모습을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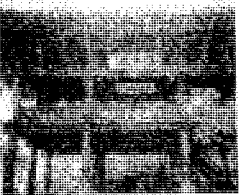
고 있다. 이 사지의 창건년대는 유구와 유물을 종합하여 볼 때 공주에서 부여로 도읍을 옮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강당자리에 중창하였던 정림사는 그 평화에 부조된 명문과 마찬가지로 고려 현종 19년(1028)이 된다.

정림사지5층석탑 (定林寺址五層石塔)

국보 제 9호. 높이 8.33m. 재료는 화강암으로 7세기의 것으로 추정. 현재 남아있는 2기의 백제 탑 중의 하나로서 한국석탑 양식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좁고 얇은 2기의 백제 탑 중의 하나로서 한국석탑 양식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좁고 얇은 단층기단이나 1층 우주의 엔타시스 기법, 얇고 넓은 옥개석 형태, 목조 건물의 두공(斗拱)을 병형시킨 받침수법이나 탑의 세부를 따로 만들어 구조한 것 등은 목탑 형식에서 번안된 것임을 말해준다. 1층 탑신에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침략한 후에 4면에 새긴 명문이 있다. 전체형태가 세련되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후세 석탑의 모범이 되는 초기형태의 석탑이다.

부소산성 (扶蘇山城)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소재 부소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토석혼축산성. 사적 제 5호. 둘레 2,200m 면적 74만6202km². 부소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테피식 산성을 축조하고 다시 그 주위에 포곡식 산성을 축조한 복합식 산성으로, 성내에는 사비루·영일루·반월루·고란사·낙화암·사방의 문지·군창지 등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사비성'·'소부기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산성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기 위하여 538년(성왕 16) 수도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나, 이보다 먼저 500년(동성왕 22)경 이미 산봉우리에 테피형 산성이 개



축되었고 605년(무왕 6)경에 현재의 규모로 확장, 완성된 것으로 추종되고 있다. 성의 바깥 벽면은 기황색사질토를 겹겹이 다져 놓았다. 그 위에 돌을 3~5단으로 쌓고 흙을 덮었다. 이런 방식의 축조된 산성의 입지는 경사면이어서 원래의 경사도보다도 더욱 가파른 경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산성의 아래 너비는 7m 가량이며 높이는 대략 4~5m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는 동·서·남문지가 있으며, 북쪽의 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에 북문과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문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대형 철제 자물쇠가 발견되어 문지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남문지에는 아직도 문주로 사용하였던 초석 2개가 동서로 나란히 있다. 1978년 금강상수도 사업 공사로 인하여 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었는데 성벽 내부는 잡석으로 적심석을 넣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한,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목책지와 수혈상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 산성은 성내에 군창지와 건물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평상시에는 백마강과 부소산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비원으로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사비 천도 이후 백제 멸망시까지 국도의 중심산성으로서 인근의 청산성·창마산성 등의 보산성으로 왕도의 방어를 강화한 성곽발달사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낙화암 (落花巖)

충청남도 보령군 백마강변의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 바위. 바위 위에는 백화정이라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다. 『삼국유사』 백제고기에 의하면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는 강물이 임하는데, 모든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하고 서로 이끌고 이곳에 와서 상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 바위를 타사암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낙화암의 본래 명칭은 타사암이었는데, 뒷날에 와서 궁녀, 즉 여자를 꽃에 비유하고 이를 미화하여 붙인 이름이 분명하다. 이 바위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용

담이 많은 영주였는데 여러차례 신라의 여러 고을을 쳐서 천하에 그 성세를 높인 뒤로는 정사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궁성 남쪽의 만해정에서 궁녀들을 데리고 가무주연의 향락을 일삼았다. 좌평 성충은 이를 근심하고 극력 간하였으나, 왕은 이 말이 귀에 거슬려 그를 옥에 가두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아파서 죽고 말았다. 이러할 때 일찍이 백제의 침략을 받아온 신라는 무열왕 및 김유신 등의 영주와 명신이 나타나서 크게 나라의 힘을 길러 복수를 하고자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하여 백제를 치게 되었다. 이에 백제의 용장 계백은 4천의 적은 군사로써 황산벌에서 신라군사와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자 나당연합군의 수많은 군사가 일시에 수륙 양면에서 쳐들어와 왕성에 육박해오자 왕은 그제서야 성충의 말을 듣지 아니 하였음을 후회하였다. 왕은 하는 수 없이 해질 때를 기다려 왕자 효를 데리고 웅진성으로 달아나서 싸웠으나 성문은 부서져 열리고 말았다. 수많은 궁녀들은 슬피 울면서 흉악한 적군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대왕포 물가 높은 바위에서 치마를 뒤집어쓰고 사자수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로 하여 이 바위를 낙화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우금치 동학 혁명군 위령탑

제 3일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40번 국도는 고개 하나를 넘어서 이어진다. 이 고개는 부여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부여나 논산에서 공주로 들어오려면 꼭 넘어야 하는 고개이다. 그리 험하거나 굽이치지 않아도 이 고개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 1894년에 외세에 밀리는 관리들의 폭정과 수탈에 견디다 못해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펼쳐 일어난 농민군이 이 우금치 전투를 마지막으로 처절히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민군의 주요 집결지였던 정읍, 부안, 고창 등과 더불어 그 역사를 길이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둘러 보아야 할 3곳이다. 1994년은 1984년에 못 이룬 갑오농민전쟁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고부봉기를 기념하여 2월부터 시작된 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행사는 10월 30일 여기 공주 우금치에서 한 많은 농민군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제로

마무리되었다. 농민군이 스러져 간 지 꼭 100년이 된 1994년에서야 이 우금치는 사적 제387호로 지정될 수 있었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토록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지난 100년 동안의 세월이 농민군이 발뺌고 누울 수 없었던 세월이었음을 반증한다. 우금치 고갯마루에는 1973년에 세운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서 있다. 탑의 명칭이 '동학'이나 '농민'이나, '운동'이나 '전쟁'이나 '혁명'이나가 불느냐에 따라 그 탑을 세운 건립 주체가 이 1894년의 농민 봉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곧 어떤 역사에 기대고 있느냐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탑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 정치로 폭정을 하던 당시 대통령 박정희씨가 세우고 자신의 쿠데타를 농민군의 혁명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려 했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탑 뒤편의 새김글에 새겨진 그 이름 석자를 뒷날 누군가가 돌로 몽개놓아 분풀이를 한 흔적도 있다.

공주군 (公州郡)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는 군. 차령산맥 남동쪽에 위치하여 국립공원 계룡산을 비롯한 수려한 경관과 선사 및 백제 시대 유적, 그리고 동학사·갑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장기면 석장리를 비롯하여, 군내 여러 곳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되어 사람의 거주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이다. 신라 말기에 후백제의 영토에 속했다가 고려조에 들어 940년 현재의 이름인 공주로 바뀌었다. 조선 시대에도 공주목이 유지되어 충주·청주·홍주와 함께 충청도 4대 고을의 하나로, 차령산맥 이남의 중심지였으나 인조·현종·영조·정조대에는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군의 북서부에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차령산맥이 이어져 국사봉(402m)·무성산(813m)·금계산(575m) 등 많은 산이

솟아 있으며, 동남부는 계룡산(828m)이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군내 곳곳에 200~300m 정도의 구룡성 산지가 널리 분포하며, 중앙부 하천 유역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전체적으로 분지 형태를 이룬다. 공주군은 옛 백제의 고도를 포함하고 있을 뿐아니

있을 뿐 아니라 군내에 많은 유물·유적이 분포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무령왕릉 (武寧王陵)

백제 무령왕(501~523, 재위)과 왕비가 합장된 능으로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되어 발굴조사 되었다. 동성왕(479~501, 재위)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령왕은 안으로 동성왕 말년에 일어났던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재확립하는 한편, 밖으로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내고, 신라 및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외교를 강화하는 등 웅진 천도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백제가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 능은 6호분과 같이 벽돌로 축조한 터널형 전축분으로 직사각형 현실의 남쪽 가운데에 현실로 들어가는 짧은 연도가 달렸다. 연꽃무늬, 인동무늬, 마름모꼴 선무늬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아름답게 새긴 벽돌을 각기 그 TM일 위치에 알맞게 갖가지로 만들어 쌓은 현실의 벽 5곳에는 등잔을 놓았던 등감이 있고, 등감 아래에는 창을 배치하였다. 발굴에는 당시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던 목관이 현실 바닥에 동서로 놓여 있었고, 현실 내부와 연도에서는 금제관식, 팔찌를 비롯한 각종 금은제 장신구와 무기류, 도자기 등 108종 2906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능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 왕비였음을 명확히 알려 주었던 2장의 석판으로 된 묘지는 연도 입구 가까이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백제왕릉으로는 최초로 주인공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많은 유물을 간직한 채 고스란히 발견된 이 무령왕릉의 발굴 조사는 백제 문화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공산성

공주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으로 공주 시가를 외회하고 있는 둔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공산성이다. 백제의 공주 도읍 때에 궁성이 있던 곳이라고 하니 백제 역사에서의

제가 국가로서 발전한 이후에는, 외부 문화를 수입하여 한층 세련되고 발전한 문화를 보급하였기 때문에 그 전의 문화 교류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왕대에는 본격적으로 문화를 보급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게 된다.

이 글에 참고된 대부분의 논문의 요지는 모두 백제가 중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착화 시킨 점,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전파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밖에 평가하지 못한 이유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과거와 현재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잔재와 연구성과의 부족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중국 문화와 백제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것에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일본문화와 백제문화의 교류에는 일방적인 "전파"로 칭하면서 일본에는 문화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문화의 원형을 백제가 이룩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결국 한국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는 일본이 백제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형상화하여 일본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켜 갔는지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민족의 우월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백제의 문화전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먼저 백제의 문화를 수용한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문화를 변화·발전시켜 나아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공주대박물관, 1992, 『백제의 조각과 미술』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사』 6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박종술, 1988, 『백제, 백제인, 백제문화』, 지문사
 박현숙, 1999, 『백제이야기』, 대한교과서
 송형섭, 1988, 『일본속의 백제문화』, 한겨레
 유원재, 1996,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이기동, 1996, 『백제사연구』, 일조각
 이도학, 1997, 『새로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1, 민음사
 충청남도, 1994, 『백제의 종교와 사상』
 김철준, 1984, 「백제사회와 그 문화」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성주택, 1971, 「대외관계에서 본 백제문화의 발달요인」 『백제연구』 2

- 신형식, 1984, 「한국 고대사상에 나타난 충효사상」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유남식, 1982, 「백제사상의 연구」 『백제연구』 특집호
 이도학, 1996, 「백제문화의 일본전파」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안승주, 1996, 「제6장 제3절 백제의 미술문화」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주일량, 1993, 「백제의 중국남조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고찰」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홍이섭, 1968, 「백제사의 성격과 그 문화적 특징」 『한국사상』 9, 한국사상연구회
 권태원, 1993, 「백제의 남천과 중국문화의 영향」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유원재, 1996, 「제5장 제1절 중국왕조와의 관계」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金哲洙, 1984, 韓國城郭都市의 形成發達過程과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홍대박사논문.

손정목, 1977,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一志社.

심정보, 1994, 고려말조선초의 하삼도 읍성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20, 동아대석당전통문화연구원.

李相泰, 1992, 조선시대 군현의 변천, 『실학사상연구』3, 무악실학회.

孫禎睦, 1991, 조선사회의 도시의 구조와 발전, 『한국의사회와문화』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車勇杰, 1977, 세종조 하삼도 연해읍성축조에 대하여, 『사학연구』27.

구석기 문화의 연구

-공주 석장리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사학과 3학년 전민석

목차

- | | |
|---------------------|---------------------|
| 1. 머릿말 | 3. 석장리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 |
| 2. 석장리 유적자리와 발굴조사개략 | 4. 석장리 후기 구석기 문화 |
| | 5. 맺음말 |

1. 머릿말

구석기 시대(문화)라 함은 약 250만년 전부터 1만년전까지 빙하기와 간빙기동안(제4기 플라이오세)에 주로 존재한 것으로 펜식기를 도구로 사용하여 수렵·채집을 생업으로 한 인류 문화 사상의 한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중석기·신석기시대를 통틀어 선사시대라 한다.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연대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그 전반적 개관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라프리카의 온대지역·아열대지역에서의 문화발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석기를 만드는 기술, 수법, 모양새 등에 있어서 원리는 비슷했으며, 수법의 발달도 시간에 따라 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고고학적 방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대표적인 구석기문화 유적으로는 북한의 함경북도 웅기군 노서면 굴포리와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유적지이다. 석장리 선사유적의 중요성은 우리겨레의 역사가 흔히 알고있는 단군 시대, 청동기 시대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구석기시대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증거 한다는 점에 있다. 구석기 시대를 처음으로 우리 뿌리를 밝혀서 우리의 역사시대에 이어주는 작업이 선사 고고학의 일이며, 석장리 연구는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이루어졌다.

2. 석장리 유적자리와 발굴조사 개략

답사를 준비한 사람들

준비팀장 : 이종오 (94)

사전답사 : 이종오 (94), 나진호 (94), 이은율 (96)

답 사 지 : 서선일 (94), 홍정완 (94), 정준 (95), 전민석 (95),
홍경수 (96), 심호수 (96), 차효라 (97), 이은령 (99)

기획 / 홍보 : 최형수 (94), 유상훈 (94), 장한님 (97), 권성민 (97),
조한라 (97)

회 계 : 심형선 (95)

답사준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사학과, 인문학부 및, 유럽어문학부 학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답사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세심하고 열성적인 도움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대학원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이름을 다 적지 못하지만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 1 해미읍성 고지도

그림 2 성곽시설물 배치도

그림 3 탐부분 명칭 (1)

그림 4 탐부분 명칭 (2)

그림 5 불상 각부분 명칭

그림 6 건축물 각부분 명칭

그림 7 공포(栱包)구성의 도해(圖解)

그림 8 구석기 유적 분포도

그림 9 석장리 유적 전체 평면도

